



“30년만의 의대 설립 기회 살려야”

김영록 지사 “절박한 심정...힘·지혜 모아달라” 간곡 호소
“공모 방식 통한 추천 대학 선정 최선이라는 데 모두 공감”
각 지역 과도한 경쟁 자제 요청...‘공정한 공모 진행’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30년 만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야 하는 만큼 각 지역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정부·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도민의 30년 묵은 한을 꼭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국립의대가 계획대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갈등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 확정해 정부에 신청해야만 하는 촉박한 일정”이라며 “제반 여건

특히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모 방식 철회와 관련, 김 지사는 “공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 방식을 대체할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전남도의 추천 대학 선정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희망 대학을 직접 신청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교육부가 현재 공모 방침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신청서를 받아들일지도 만무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에서 정해 신청하도록 했고,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전남도의 공모 절차와 통한 추천 대학 선정은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복지씨앗 ‘저금동’ 개봉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진행된 ‘2024년 와우골 복지씨앗 뿌리기 저금동’ 개봉 행사 17일 광주 북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이 모금액을 쏟아 붓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실버가 구입비로 제공될 이번 동전 모금은 우산동 관내 말바우시장과 식당, 상가, 금융기관 등에 비치해둔 저금통이다. /김애리 기자

광주 장애인 복지·의료 인프라 확 늘린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0월 개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추진

광주시가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고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 복지·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인 친화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등 복지·의료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먼저 재활 치료가 제 때 필요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재활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지난 2일 착공, 오는 10월 개원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

현 호남권역재활병원(북구 본촌동) 내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외래·치료실과 기존 낮 병동 8병실에서 36병상을 추가해 총 44병상(낮 병동 24병상·입원 20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광산구 옛 인화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을 건립한다. 총사업비 40억8천100만원을 투입해 숙속, 전시설, 장애 체험장, 다목적 체육관, 강의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힐링

과 치유를 집목한 복합수련시설로 들어선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달 장애인에게 전문·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등 3개 형태로 제공된다. /박선경 기자

Today

이인용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5면
아열대작물 재배농가를 가다 9면
‘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12면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원우 모집

관광 프로그램 개발·서비스·마케팅 등 전문 강의
6월5일 개강...특강 5회·2박3일 선도 관광지 견학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관광산업 리더들을 위한 ‘2024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함께 참여할 원우를 모집합니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관광아카데미는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이론 및 국내 관광 선도지역 견학 등 현장 학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강신경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석장호 진주문화예술재단 기획실장 등이 강사로 참여해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마케팅 등

관광산업 전반의 이론과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여수·통영에서 진행되는 2박3일 일정의 현장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예정입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심혈을 기울여 개설한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관광 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십시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민간축제 위원회, 행사 기획사, 관광에 관심 있는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인원 : 50명 안팎
- 교육기간 : 2024년 6월5일 개강, 6월12일~14일 현장학습(여수·통영) 6월20일 종강
- 지원자격 : 광주·전남 자치단체 관광 관련 공직자, 이벤트 기획사 임직원 및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민
- 강의방식 : 전문가 특강 5회 / 현장학습(2박3일)
- 수강료 : 250만원(현장 학습비 포함)
- 모집기간 : 2024년 5월31일까지
- 문의 : 광주매일신문 TV본부 062-650-2024-2007

광주매일신문

김영록 지사, 21개월 연속 1위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2024년 3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김영록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월 조사 결과 68.8% 대비 1.3%p 하락했다.

김영록 지사에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가 66.2%로 2위를 기록했다. 3위 이철우 경북지사(64.0%), 4위 김동연 경기지사(59.1%), 5위 홍준표 대구시장(55.9%) 등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조



사에서 10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5월부터 10위 이내 상위권 평가 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2월26일~29일과 3월28일~30일, 전국 18세 이상 1만3천600명(사·도별 2~3월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p, 응답률은 2.6%다. /김재정 기자

※신문의 날 대체휴무...19일자신문입니다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